

마태복음 20장 1-16절 말씀

- 01 천국은
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
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

- 0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

- 0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
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
- 04 그들에게 이르되
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
그들이 가고

- 0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
그와 같이 하고

- 0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
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
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
- 0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
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

- 0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
품꾼들을 불러
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
- 0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
-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
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

-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
-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
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
-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
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
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
-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
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
-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
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

-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
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